

한국 화학산업 미래는 있는가? ...

화학섬유 불황의 장기화

화학섬유산업이 장기불황에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또 화학섬유 시장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생산규모의 적정화, M&A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인식도 돼 있는 상태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인상이 어렵고 식물 기업까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서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섬유 평균 수출단가가 1993년 kg당 2.2달러에서 1997년 1.5달러, 2000년 1.4달러로 하락한 데 이어 2001년 1.2달러대로 추락한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다.

삼양사와 SK케미칼의 화학섬유 통합법인 휴비스는 2002년 1/4분기에 Polyester SF의 중국 수출 감소와 단가 하락, Polyester F의 공급 과잉과 저가 경쟁등으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전년 동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량의 80% 정도를 국내 판매에 의존하는 Polyester F는 국내 직물 업계의 경쟁력 약화와 맞물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이다.

최근 들어 석유화학 기초유분 및 합섬원료 가격 상승에 힘입어 Polyester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료 가격 상승과 함께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화학섬유 경기 가본 격적인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다.

Polyester Filament 가격이 4월 들어 75센티어 기준 kg당 1.10-1.2달러로 2001년 말에 비해 15-20% 올랐고, Staple Fiber도 0.9달러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 증가 요인 보다는 MEG, PTA 등 합섬원료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PA 가격은 2002년 1-2월 톤당 30달러대 후반에서 3-4월에는 50달러로 안팎으로 상승했고, EG 가격도 400달러 안팎에서 4월 600달러대로 상승했다.

일부에서 9.11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침체됐던 중국의 미국에 대한 봉제 완제품과 직물 수출이 급증하면서 원사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경기가 예상외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증시가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2001년 기준 국내 화학섬유 생산량의 87%,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Polyester에 공급 과잉 및 생산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화학섬유 산업의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려 12개 메이커가 난립해 공급 과잉을 보이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덤핑 거래가 관행화돼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화학섬유 경기가 살아나고 Polyester 가격이 상승함으로 써 부실 화학섬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의 화학섬유 생산량 증가도 큰 문제로 2002년 1-2월 화학섬유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어난 140만 2000톤에 달했고, 국내 화학섬유 수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Polyester F 생산은 67만 7800톤으로 23.8%, Polyester SF는 41만 9000톤으로 23.7% 증가했다고 한다. 나일론은 9.5% 늘어난 6만 2400톤, Viscose는 15.8% 증가한 10만 3600톤에 달했다. 아크릴 섬유만 7만 9200톤으로 1.1% 줄었을 뿐이다.

중국의 화학섬유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자급률이 최근 80% 수준에서 2003년에는 100%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도 대두되고 있는데, 중국의 화학섬유 생산량은 1993년 27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13.0%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790만 톤으로 28.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화학섬유의 중국 수출이 급감해 2001년 중국 수출은 4억 3546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8% 감소했다.

결국 부실 기업의 정리, 감산 등을 통한 구조적인 공급 과잉 해소 없이는 근본적인 불황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섬 협회는 인수·합병을 통한 공급 과잉 해소와 함께 노후 설비나 경쟁력을 상실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폐기해 생산 규모를 적정화하면 20% 수준의 감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했고, 다시 만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일 것이다. 1970년대에 한국이 영국을 공지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과 동남아가 한국을 공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화학섬유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부실의 덩어리가 그대로 굴러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너 체제의 문제 가 해소되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2001년 화학섬유 산업을 적자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노동 조합이 문제인가?

화학섬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단안을 내려야 하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2002/5/6>